



## 인하대, 2021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 14.76대 1 3천3명 모집에 4만4천321명 지원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3천3명 모집에 4만4천321명이 지원해 14.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전형은 10.28대 1(948명 모집에 9천746명 지원),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 5.55대 1(333명 모집에 1천849명 지원)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교과전형은 623명 모집에 5천171명이 지원해 8.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논술우수자 전형은 529명 모집에 2만2천464명이 지원해 42.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타 실기전형은 26.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연극영화학과(이론연출)가 82.1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단위별로 보면 학생부 종합(인하미래인재) 전형은 의예과가 26.9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생부종합(학교장추천)전형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도가 16.14대 1로 가장 높았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산업경영공학과가 21.00대 1로 가장 높았고, 논술우수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예과가 487.8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설학과로 관심을 끈 첨단융합학부의 경쟁률은 총 71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전형에서 인공지능공학과가 8.15대 1(20명 모집에 163명 지원)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7.20대 1(15명 모집에 108명 지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6.95대 1(20명 모집에 139명 지원),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5.81대 1(16명 모집에 93명 지원) 순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인하대 수시모집 전형은 10월 17일(토) 실기우수자 전형 연극영화학과(이론연출) 실기 고사부터 시작했다. 조형예술학과(인물소묘) 10월 18일(일), 의류디자인학과(실기) 10월 24일(토), 디자인융합학과 10월 25일(일)에 실기 고사를 치렀다. 연극영화학과(연기) 실기는 10월 30일(금)부터 11월 1일(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전형 면접고사는 12월 5일과 6일 사이에 계열별/모집단위별로 진행하고, 논술우수자 전형 논술고사는 12월 19일(인문)과 12월 20일(자연)에 실시한다. 최초합격자는 전형별로 11월 13일(금)과 12월 27일(일)로 나눠 발표한다.

전형별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홈페이지(<http://ratio.uwayapply.com/2021/susi2/inha/1/>)에서 확인할 수 있다. 📌